

정부 수매 '역차별' 받는 제주산 마늘

제주 생산많은 품종·저장창고 보관 마늘 수매서 제외... 1만3000t 해결 '감감' 제주농협 "정부 2차 조기 수매 하지 않으면 제주 마늘농가 피해 불보듯" 주장

제주산 마늘이 정부 비축수매계획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아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조합, 농협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2차 수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물론 제주산 마늘 수매 폭을 늘릴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산 마늘 생산량은 36만9000t으로 지난해 보다 3만7000t이 늘었다. 평년대비 6만4000t이 과잉 생산됐다. 제

주지역에서도 올해 3만6446t 생산되며 전년대비 12.9%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은 계약물량 8000t과 함께 비계약물량 5000t을 추가로 수매해 현재 1만3000t을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보관료만 한달 평균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최근 전국 마늘농가들이 요구한 kg당 2500~3000원의 수매단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2300원으로 책정, 발표했다. 수매규격도 5cm 이상으로, 제주산 마늘 남도종의 경우

타지역 대서종과 비교할때 절대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더불어 수확시기도 대서종보다 한달 앞서기 때문에 수확 후 현재 저온창고에 보관하며 거액의 보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차 정부수매에서 제주에 배당한 물량은 500t에 불과하다. 이는 농협이 갖고 있는 물량의 3.8%에 그치며 전국단위로 볼 때 제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수매조건에서도 농협이 수매한 마늘과 저온창고에 보

관한 물량은 수매에서 제외해 문제는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제주농협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1차 수매에서 사실상 제주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2차 조기수매를 통한 가격 지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마늘값 잡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관계자는 이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마늘 소비는 줄고있고 양념류 및 김치가공업체에서는 가격 하락을 기다리며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 없이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농가에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해바라기 속에 숨은 나비 15일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도로 해바라기에 나비 한마리가 찾아들어 햇볕을 피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추자도 석산 훼손 혐의 건설업체 2곳 압수수색

자치경찰이 추자도 석산 부지에 폐기물 불법매립과 폐수 불법배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5일 혐의 관련 추가자로 확보를 위해 추자도와 제주시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건설과 B개발은 '석산'이라고 불리는 추자면 신양리의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폐기물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 레미콘이나 페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안가에 콘크리트 불법 타설 등 형질을 변경해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 119 하루 평균 500차례 출동

지난 상반기 상황실로 총 9만1922건 접수 구급출동 2만여건 '최다'... 화재는 1192회

올 상반기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하루 평균 50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9상황실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9만1922건으로 하루 평균 50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출동한 경우는 3만891건이며, 나머지는 의료 상담이나 병원 안내, 수도권 병원 이송 등 상담전화였다.

구급출동이 2만40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급출동의 경우 급·만성 질환자 1만1372명(61.8%), 교통사고 2382명(12.9%), 낙상·추락 2316명(12.6%) 순이었다.

이외 구조출동은 5609건으로 집계됐고 안전조치(28.5%), 동물포획(15.9%), 화재(12.2%), 잠금 장치개방(7.1%) 등의 순이다.

화재는 총 1192회 출동해 364건이 소방에 의해 처리됐는데,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출동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츄츄한 사회안전망 구축할 것"

장원석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 취임

장원석(52·사진)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은 15일 본서 2층 청명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민에게 믿음직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신임 서장은 "최근 여성 상대범죄 및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증가 등으로 도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민, 지자체, 경찰 등이 함께하는 참여 치안을 통해 츄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 확대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국가·자치경찰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역량 강화, 수사 전문성 확보 및 인권 보호 강화 등 경찰개혁 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전 남편 살해사건' 등으로 인해 경찰 수사팀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 살해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인해 경찰청에서 진상조사팀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개선책을 만들어 업무에 반영하고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외국인 범죄 대비 안전구역 확대"

김진우 신임 제주서부경찰서장 취임

김진우(56·사진) 신임 제주서부경찰서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서장은 "제주에 있는 2만 5000명의 외국인 가운데 1만명 가량이 서부서 관할에 거주하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이 많은 누웨모투 거리와 한림항을 외국인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안전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안전구역에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CCTV 설치 등 범죄예방시설 확대도 진행되고 있다"며 "아울러 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 재배치도 지방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청앞 천막 농성 장기화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면서도 "공공질서 위반이나 폭력 사태, 관공서 무단 진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 확대에 대해서는 "연동지구대가 자치경찰단으로 넘어가면 서 사건에 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에매한 사건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등 현재 상황별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완책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능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한번 칠하면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외벽 방수 페인트**

칠만하면 100% 방수와 페인트칠을 한번에 (시간절약, 비용절약)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p>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	--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성지요양원

이도아파트빌딩(타일면)

싱글지붕용 탄성도막 방수제

부식이 되어있는 싱글지붕을 칠만하면 방수되고 탄탄한 새지붕으로 바뀝니다.

● 노형 위더스빌라 12차 ● 세일자동차 외

★ 주요생산품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최고급 벽난로 무동력 화목 펠릿 겸용난로 판매

※ 초기 점화 토치구에서 30초내 점화 5분이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 장작용 벽난로, 정원, 캠핑용 난로도 있습니다.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